

문 40.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것이 무엇인가?

답 40: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로마서 2:14-15, 10:5

추가질문 1: 하나님께서는 복종할 수 있도록 무엇을 사람에게 주셨는가?

추가질문 2: 도덕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추가질문 3: 왜 도덕의 법칙이 필요했던 것인가?

설명: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복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덕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이 도덕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많은 법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적인 원칙 하나만을 말씀하셨는데 “행위의 언약” 또는 “생명의 언약” (창세기 2 장 16-17 절)을 세우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법으로 다스리시기 보다는 그와의 관계로 다스리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은 신뢰의 언약이었다. 하나님과 신뢰하고 함께 하고, 함께 걷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높은 인격체로서 그리고 진정한 인격적 대화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특권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사단앞에서 부담스러워했으며 결국은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된 것이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도덕의 법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별하시기를 원했던 것이다. 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강박해지면서 그 들의 행동을 다스릴만한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아래에서 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또 법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도덕의 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덕의 법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것이다. 도덕의 법은 사람의 삶을 조명하며 주는 거울과 같다.

도덕의 법칙이 주어지기 전에는 법이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때의 법은 글로 규정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법이 의도하는 바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들의 마음에 세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양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양심은 사람을 옳은길로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여졌고 혼탁해졌던 것이다. (롬 1:21, 25, 28)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도덕의 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확고한 삶의 기준이 필요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